

지역병원의 기술수준(II)

저자 : 에드워스 패터슨(홍콩, 연합기독병원)

번역 : 신영수 · 김용익(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서정숙(서울대 보건대학원)

이 글은 최근 일차보건의료에 있어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지역의료체계」내에서, 병원이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며,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저자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꼭 지역의료체계 개념이 아니더라도 지역사회내에서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할 때 병원이 어떠한 방향을 취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일반론적으로도 많은 시사를 던져주고 있다. 지역의료체계에 대한 최근의 문헌들 중에서 병원에 대해 가장 상세하고 종합적 논의를 전개하고 있어, 널리 소개하고자 한다.

〈譯者〉

차례

- ★ 1. 들어가는 글
- ★ 2. 지역병원의 새로운 역할
- ★ 3. 병원과 지역
- 4. 지역병원의 관리적 기능
- 5. 임상과정
- 6. 지역병원의 임상적 기능
- 7. 지역병원의 기술적 기능
- 8. 지역병원의 호텔기능

★는 게재분

3. 병원과 지역

이 장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지역」(district)이라는 말의 의미와 지역의료체계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어야 할 바람직한 방식에 대해 잠깐 생각을 간추려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지역」이라는 단어는 사람에 따라 매우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나 공식적, 정부적 차원의 의미를 가지는 일이 많다. 국가적인 수준에서는 정부가 인정하는 행정구역 중 최소의 것이라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보건당국에서는 「보건지역(health district)」을 보건의료체계가 성립될 수 있는 가장 작은 지역단위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보건당국에서 정의한 「지역」이 일반행정의 지역단위와 지리적으로 일치된다면 다행스러운 일이다. 책임이 명확해지고 혼란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경계가 명확히 정의된 행정의 지역단위, 또는 달리 표현하자면, 핵심적인 지방정부책임자 몇몇에 의해 관리되는 지리적으로 밀집된 단위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할 수 있게 된다. 그와 같은 지역단위에는 지역발전위원회 같은 것이 설치될 수 있을 것이며,

가능한 한 최고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달성하기 위해 힘쓰는 보건개발이 그 임무 중의 하나로써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위원회가 보건분야의 목표를 설정하게 된다면, 그것이 일차보건의료와 「전인류건강」운동에 기초한 것일 수 있는 것이다.

전체적인 임무는 개인, 가족, 지역사회 등에 대한 실무적 수준의 목표지향적 하위목표로 세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건강상 위험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혜택받지 못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고위험(high risk)군에 속한 사람이라면 5세 이하의 어린이, 남녀 청소년, 노인 등을 말한다. 가족에 대한 하위목표에는 모성보건, 식품과 영양, 가정위생, 가정생활교육, 일차보건의료와 자가치료 등의 주제가 있다. 지역사회보건에 대한 하위목표로는 성인들에 대한 문자해독교육, 지도력 훈련, 최대한의 안전한 고용, 안전하고 충분한 식수와 주택공급, 위생적 폐기물처리, 약품공급, 질병발생의 감시와 관리, 보건교육과 보건정보, 보건에 관한 자료의 수집과 활용, 보건을 위한 사회적 자원의 동원, 그리고 정신보건, 구강보건, 재활 등의 특수한 보건의료요구에 대한 충족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여러 문헌에서 보면 모든 지역병원은 병원과 일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지역적으로 경계가 명확히 정의된 지역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되풀이하여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수 많은 역사적 사건들을 거쳐오는 동안 병원, 특히 대도시의 병원들은, 그들이 봉사하여야 할 진료권을 뚜렷이 설정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러한 현상에 대해 특별히 우려하고 있지도 않는 것 같다. 대도시에서는 지역의 경계를 설정하는 일이 매우 어려운 일이기도 하거니와, 환자로서는 자기가 선호하는 병원에 가기 위해서 근처의 병원 몇 군데를 지나쳐 가버리는 것이 손쉬운 일이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병원이 일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지역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병원은 병원활동에 대해 「상아탑」적인 내부지향적 개념을 설정하게 되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보다는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만 노력을 집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모든 지역병원은 자신이 속해있는 지역을 이해하여야 하며, 그 지경과 창조적인 관계를

세워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어떤 종류의 관계를 의미하는가? 관계란 그 지역의 건강에 대한 상당한 책임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내의 건강상태를 상세히 이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점에 있어 병원은 자체의 통계자료로부터 지역건강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건강상태에 대한 지식이란 몇 가지 자료철을 훑어보는 정도로 쉽게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병원의 고위책임자가 그 지역을 깊이있게 파악하고, 거리를 몸소 걸어 보며, 가정과 학교와 공장을 방문해 보아,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이다. 또 그 지역의 구석구석에 사는 사람들과 직접 얘기를 해보고, 그들의 관심사, 희망, 그리고 실망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지역의 보건의료의 요구를 계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는 어떤 종류의 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종류의 조사는 「지역사회 진단」이라고 불린다. 지역사회진단에는 지역내의 보건관련기관의 완전한 목록을 작성하는 일(토착적인 보건의료기관을 꼭 포함해서), 혼한 보건문제를 파악하는 일,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일, 활동계획을 수립하는 일 등이 포함된다. 지역사회진단을 함에 있어서는 병원의 종사자들(의학적인 각도에서 문제를 보는)은 보건기관종사자들(보건의 측면에서 문제를 보는) 및 지역사회주민의 대표들과 협조해야 한다. 그들은 스스로 인지한 요구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며, 그들의 타고난 상식이 많은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하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관계는 두가지 방향의 의미를 갖는다. 병원이 그 지역의 보건에 책임을 질 뿐 아니라, 지역 역시 병원을 돋고 고무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다. 병원의 자원봉사프로그램(hospital volunteers programme)에 참여하는 것이 전형적인 예이다. 그와 같은 프로그램이 아무 보수도 받지 않는 사람을 씀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단순한 이유에서 고안된 것은 아니다. 그것은 복잡한 병원에 편안하고 가정적인 분위기를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며, 동시에 지역사회에 잘 훈련되고 성숙된 남녀 보건요원들을 배출해 내기 위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다루도록 한다. 그 지역이 병원에

책임감있게 행동하면 할 수록 지역사회의 요구하는 바가 주요한 의사결정에 반영되는 기회는 늘어날 것이다.

정보나 불평들이 지역으로부터 병원에 전달되고, 병원이 지역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경로가 설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경로의 성격은 상황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민간병원들은 대부분 성공한 사업가, 관대한 기부자나 주주, 교회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관리위원회에 의해 관리된다. 만약 이러한 위원회에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이 포함 될 수 있다면 지역사회와의 의사소통은 훨씬 원활해 질 것이다. 이 부분도 뒤에 대외관계담당관의 항목에서 더 다루기로 한다.

이런 측면에서 공공병원은 관리위원회를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소 다른 위치에 있다. 그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중앙의 보건당국이나, 지역내의 보건당국 관리들과 주로 의견교환을 하게 된다. 아마도 공공병원에서는 어떤 종류의 공개적인 토론회나, 지역과 연계를 갖는 자문위원회를 가질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또 하나 듣다면, 각 지역에 보건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 위원회를

통해 모든 보건관련 조직들이 지역보건의 증진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대표와 만나게 하는 것이다.

병원-지역관계를 증진시킴에 있어, 병원자체의 종사자 중에서 특히, 잡무직들로 인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지역사회로와의 연결고리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함이 중요하다. 이 사람들은 지역사회출신이며, 야간에는 병원을 떠나 지역사회로 되돌아 간다. 집행부는 그들로부터 지역내의 여러상태와 문제들에 대해 많은 정보를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중요한 자원이다. 게다가 만약 집행부가 그들을 가르치고, 대화하는데 시간을 충분히 쓴다면, 병원철학의 많은 부분이 지역사회의 심장부에 별 어려움 없이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병원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지위가 아무리 낮아도 상관없이) 이웃의 존경을 받으며, 일종의 보건전문가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웃에게 올바른 정보전달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꼭 하여야 할 중요한 일이다. 병원에서도 그것이 유용하고 도움되는 의사전달방법이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계속〉